

내가 느끼는 한국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을 한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카야마에 있는 한센병 요양원, 나가시마 아이세엔입니다. 그곳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태구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는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한국' 입니다.

현재 연세 90 세의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 년 전에 일본에 오신 재일한국인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않기 위해 자진해서 일본 육군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한센병을 앓으시고 조국에 부인을 남겨두시고 나가시마 아이세엔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6 년까지 '한센병 예방법' 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엄격하게 격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가족들을 갈라놓고, 이름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해서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요양원에 강제 수용되었지만 그 곳에서조차도 그분들은 강제노동을 당해,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요양원의 납골당에는 백골이 되어서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슬프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신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눈이 잘 보이지도, 귀가 잘 들리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긴장하며 나누었던 첫 대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묻자, "응. 맛있어" 라고 대답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저를 한국 사람으로 알아봐주신 것에 대해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뻐서 할아버지에게 그만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 때 저는 정말 한국말을 공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저의 어머니께서는 필리핀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힘든 경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저는 태어난 곳도, 자라온 곳도 일본이지만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었고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만나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할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긴 세월 동안 혹독한 차별의 역사 속에서 버텨 오셨지만 저희 일본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놀림 받았던 것을 무작정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일본에서 '혼혈' 을 의미하고 '절반'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하프' 라는 단어로 자신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필리핀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더블' 로서 가슴을 펴고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손은 움직이기 불편하시고 갖은 고생으로 거칠어졌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힘이 마구 샘솟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한국 김치와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로 가득한 곳에서 먹었던 라면은 할아버지의 애정이 듬뿍 담겨있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느끼는 한국.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미소와 사랑입니다.